

## 전문대학 보건계열 대학생의 가치관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만족도

정신호\*·김현희\*\*†·심상효\*\*\*

\*한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신성대학교 물리치료과, \*\*\*한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Value and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 Majoring in Health Science

Sin Ho Chung<sup>\*</sup>·Hyunhee Kim<sup>\*\*†</sup>·Sang Hyo Sim<sup>\*\*\*</sup>

<sup>\*</sup>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Hanyang University Hospital

<sup>\*\*</sup>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Shinsung University

<sup>\*\*\*</sup>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Hanyang University Hospital

####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values and self efficacy of students majoring in health science.

**Methods:** Among the 170 respondents, 25.3% were male and 74.7% were females. The departments were 28.9% of physical therapy, 20.6% of laboratory science, 23.5% of occupational therapy, 14.1% of nursing, and dental hygiene 12.9%.

**Results:** In the present study major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when the higher self efficacy and significantly lower when the higher value.

**Conclusion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ntents and appropriate guidance that can enhance the values and self efficacy in order to improve major satisfaction of students majoring in health science.

**Key words:** Major Satisfaction, Self Efficacy, Values

---

접수일 : 2017년 4월 11일, 수정일 : 2017년 6월 29일, 채택일 : 2017년 7월 31일

교신저자 : 김현희(31801, 충남 당진시 정미면 대학로1)

Tel: 041-350-1351 Fax: 041-350-1355 E-mail: ksucceess71@shinsung.ac.kr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대학 진학 시 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거나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화된 결과 입학 후 전공 학과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의 중도탈락률은 대학생활 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며(강승호, 2010), 공업계열이나 인문사회계열 보다 보건계열 학생에서 수업 및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중도탈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길순, 2010).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그러나 전공보다는 대학 서열과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현실에서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대학을 선택하는 영향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계소득, 학생의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수준과 교육포부 수준이 진학 여부와 진학하는 대학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경근과 변수용, 2006).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이전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진학하는 대학의 잠정적 순위가 더 높았으며, 전문대학 보다는 4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미래에 대한 포부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하였다(김경근과 변수용, 2006). 더불어 4년제 대학교 학생들과 비교해 기초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상당수 진학하는 전문대학은 전공을 위한 선행학습 시 학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학습 방법에 대한 훈련 부족으로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것조차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나승일 등, 200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대학 학생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며,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에 대한 구체적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Schwartz 와 Bilsky, 1990), 설정된 목표를 향해 자신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자기효능감의 향상이 필요하다(박수길과 이영희, 2002).

최근의 청소년들은 가치관의 혼란과 물질만능주의가 자리 잡은 환경 속에서 진로에 대한 선택 시 개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이 무시된 채 취업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의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예정과 이종호, 2013). 더욱이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 중 단지 10%만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선진국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는 사례와 매우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김형만, 2002; Sullivan 과 Hansen, 2004). 가치관은 개인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내면화되거나 동기화 된 것임으로 개인 행동을 연구할 때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정희영과 박옥련, 2009). 그러므로 학생들의 가치관을 파악한다면 학교생활이나 전공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치관과 더불어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나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서 발휘되는 행동과 사고에 대한 판단과 신념인 자기효능감은 전문대학 학생들의 행동과 태도를 파악하는 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Bandura, 1982). 자기효능감 중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였으며, 사회적 적응에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Scheier 등, 1999).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떨어진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를 선택할 것이며, 성공 경험보다는 실패의 경험에 익숙할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을 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고와 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이며, 실패하더라도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성공을 성취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치관과 자기효능감의 두 지표는 실패의 경험이 많고 진로 적성에 대한 고민 없이 전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전문대학 학생들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두 지표의 수준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전공 선택은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대학 생활 중 만약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학업성적은 물론 학교생활에 있어서 부적응을 겪게 될 것이다. 대학은 미래 직업에 대한 진로를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취업에 곤란을 겪는 것은 물론 취업 후 직업적 능력을 성숙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한예정과 이종호, 2013). 이처럼 전공에 대한 만족은 향후 개인의 진로와 삶의 만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졸업 후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생들의 가치관과 자기효능감은 향후 보건의료 현장에서 제공하게 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게 할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즉 전문가의 자질과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전공 분야에서 활동하려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함께 높은 자기효능감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보건계열에 다니는 학생들의 가치관과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 수준을 파악하고, 가치관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전공 진로 지도와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가설설정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설정을 하였다.

가설1 :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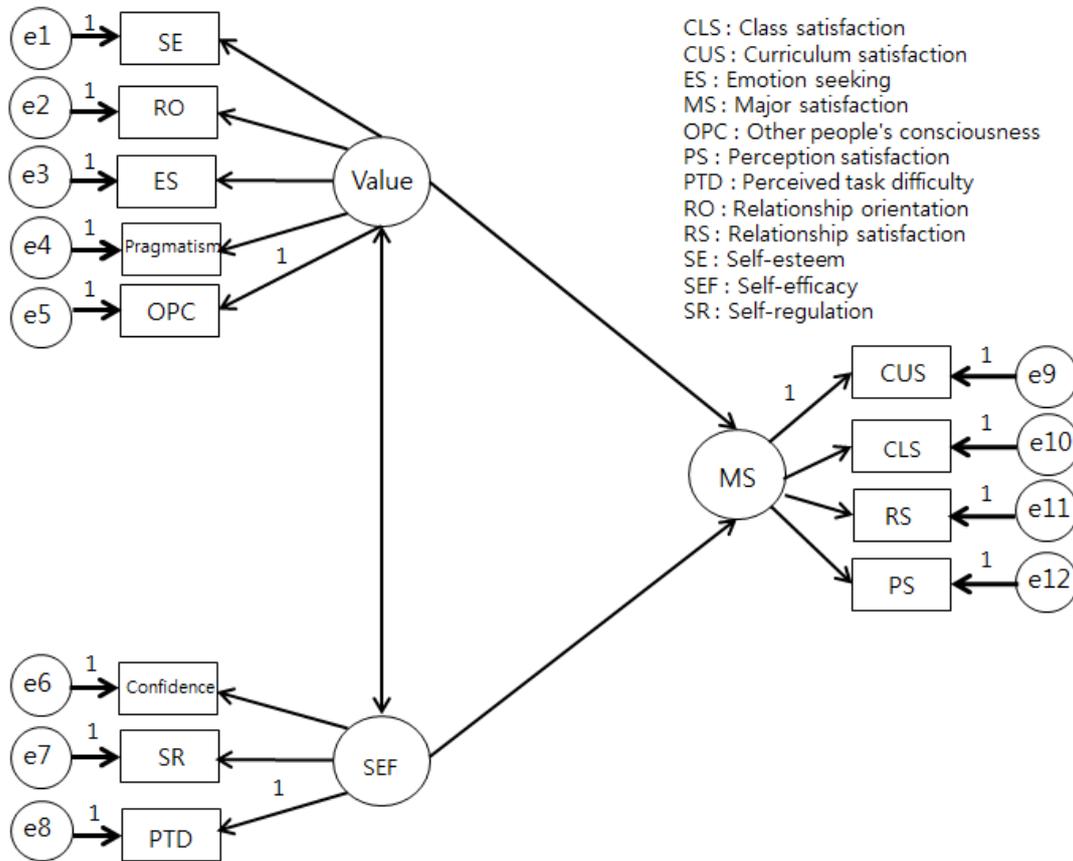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당진지역 전문대학 보건계열 5개 학과 2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에게 설문 전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였으며, 조사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설문 종료 후 바로 현장에서 수거하였다. 200부의 설문지 중 175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5부를 제외한 총 170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 2. 연구모형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 그림 1을 도출하였다.



<Figure 1> Structural equation

###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구성개념은 가치관,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로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가치관은 정희영(2010)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참조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최광열(2011)과 정희영(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참조하였고, 전공만족도는 이시라(2011)의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Likert법 5단계 평점 척도로 처리하였으며, ‘매우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였다.

구성개념 및 하위개념들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가치관의 물질주의(6항목)는 0.783, 자아존중(5항목)은 0.733, 관계지향(5항목)은 0.752, 감성추구(5항목)는 0.713, 실리주의(5항목)는 0.749, 타인의식(4항목)은 0.639을 보였고, 자기효능감의 자신감(5항목)은 0.828, 자기조절(3항목)은 0.659, 과제난이도조절(6항목)은 0.834, 전공만족도의 교과만족(6항목)은 0.834, 수업만족(3항목)은 0.714, 관계만족(3항목)은 0.822, 인식만족(6항목)은 0.907의 신뢰도를 보여 연구단위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SPSS 18.0을 이용하였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가치관,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3개의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과 1개의 구조모델(structural model)이 존재하는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구성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3개의 측정모델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는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구조모델에서는 가치관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GFI, AGFI, CFI, RMSEA 값을 통하여 평가하였으며, 적합도 검정에서 GF, AGFI, CFI가 0.90 이상이거나 RMSEA가 0.05 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한다(김영국 등, 2015). 본 연구에서 다항목으로 구성된 구성개념과 측정변수 간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집중타당성을 활용하였다(우종필, 2012). 집중타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0.7 이상이거나 t값이 1.965 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이영애, 2015),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제공한 값의 평균값인 평균 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0.5 이상이고, 표준화 요인부하량과 오차분산 값으로 계산하는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가 0.7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김영국 등, 2015). 본 연구에서 유의수준은 0.05로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남자가 25.3%, 여자 74.7% 였으며, 1학년 26.5%, 2학년 51.8%, 그리고 3학년 21.7%였다. 나이는 20~21살이 61.2%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은 물리치료과 28.9%, 임상병리과 20.6%, 작업치료과 23.5%, 간호학과 14.1%, 치위생과 12.9%였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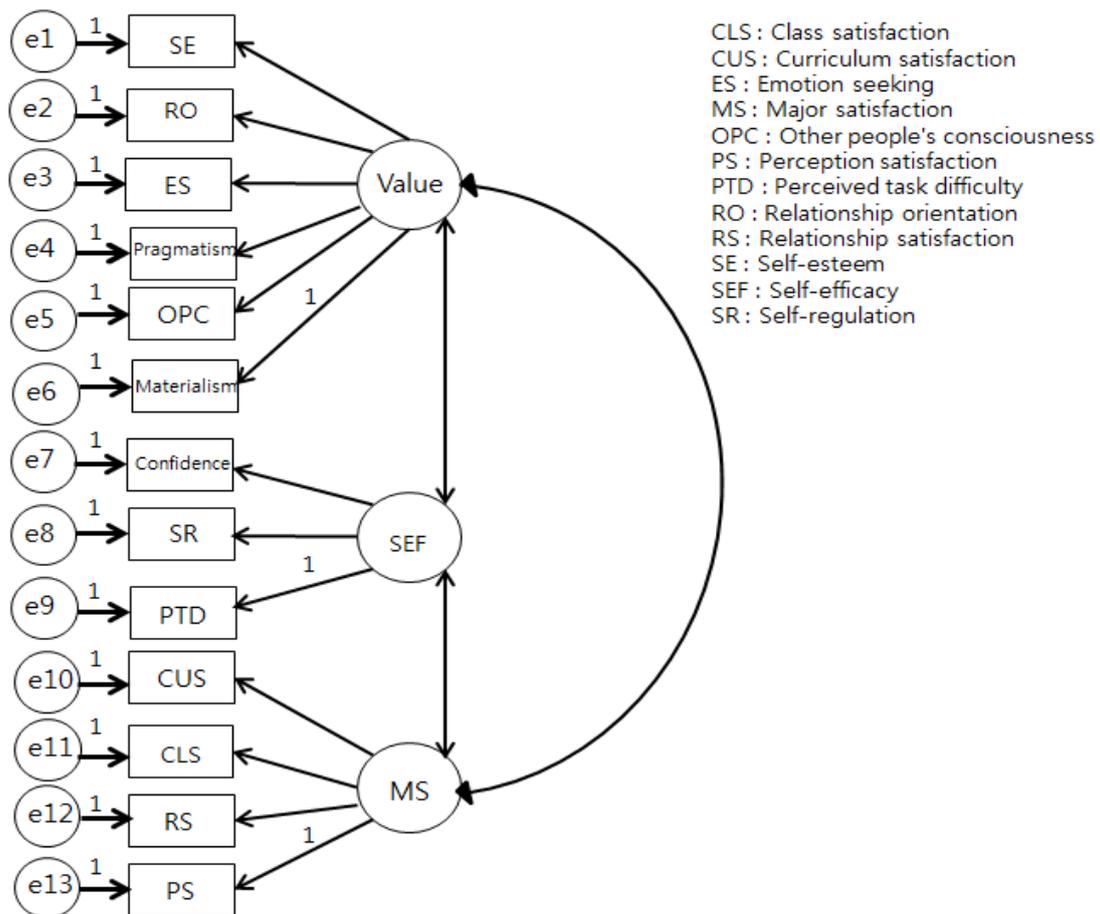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43	25.3
	Female	127	74.7
School year	Freshman	45	26.5
	Sophomore	88	51.8
	Junior	37	21.7
Age (yr)	20~21	104	61.2
	22~23	43	25.3
	24≤	23	13.5
Department	Physical therapy	49	28.9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35	20.6
	Occupational therapy	40	23.5
	Nursing	24	14.1
	Dental hygiene	22	12.9

## 2. 측정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수 추정 방법인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적합도 지수를 높이기 위해 변수의 오차항, 표준화 회귀계수, 다중상관계수를 고려하여 신뢰도가 낮은 변수를 삭제한 후 최종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측정모델은 그림 2와 같으며,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표 2와 같다. 분산추출지수는 가치관의 관측변수들이 0.5를 조금 미치지 못하였으나, 대부분의 관측변수는 0.5 이상이었고, 개념신뢰도는 모든 관측변수가 0.7 이상이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된 연구모

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요인부하량이 낮은 물질주의 측정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정모형을 개발하였다. 처음 본 연구의 전체적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121.098$ , 자유도(DF)=62,  $p=0.000$ , GFI=0.903, RMSEA=0.075, AGFI=0.858, CFI=0.911로 적합도 수준이 다소 낮았다. 수정된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chi^2=88.655$ , 자유도(DF)=51,  $p=0.001$ , GFI=0.920, RMSEA=0.066, AGFI=0.878, CFI=0.941로 개선되어 요인별 모형적합지수는 대부분 지수에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본 연구의 가치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의 구성개념 타당성이 확보되었다(표 3).



<Figure 2> Measurement model

&lt;Table 2&gt;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	Measurement factor	SE	t	CR	AVE
Value	Self-esteem	0.646	4.449	0.807	0.466
	Relationship orientation	0.447	3.764	0.830	0.497
	Emotion seeking	0.468	3.863	0.776	0.410
	Pragmatism	0.409	3.571	0.804	0.453
	Other people's consciousness	0.447	fix	0.733	0.419
Self-efficacy	Confidence	0.857	7.464	0.884	0.606
	Self-regulation	0.688	6.764	0.782	0.549
	Perceived task difficulty	0.588	fix	0.863	0.531
Major satisfaction	Curriculum satisfaction	0.855	9.615	0.896	0.595
	Class satisfaction	0.792	9.100	0.801	0.575
	Relationship satisfaction	0.737	8.550	0.885	0.722
	Perception satisfaction	0.693	fix	0.931	0.694

SE=standardization estimation; CR=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lt;Table 3&gt; The results of fit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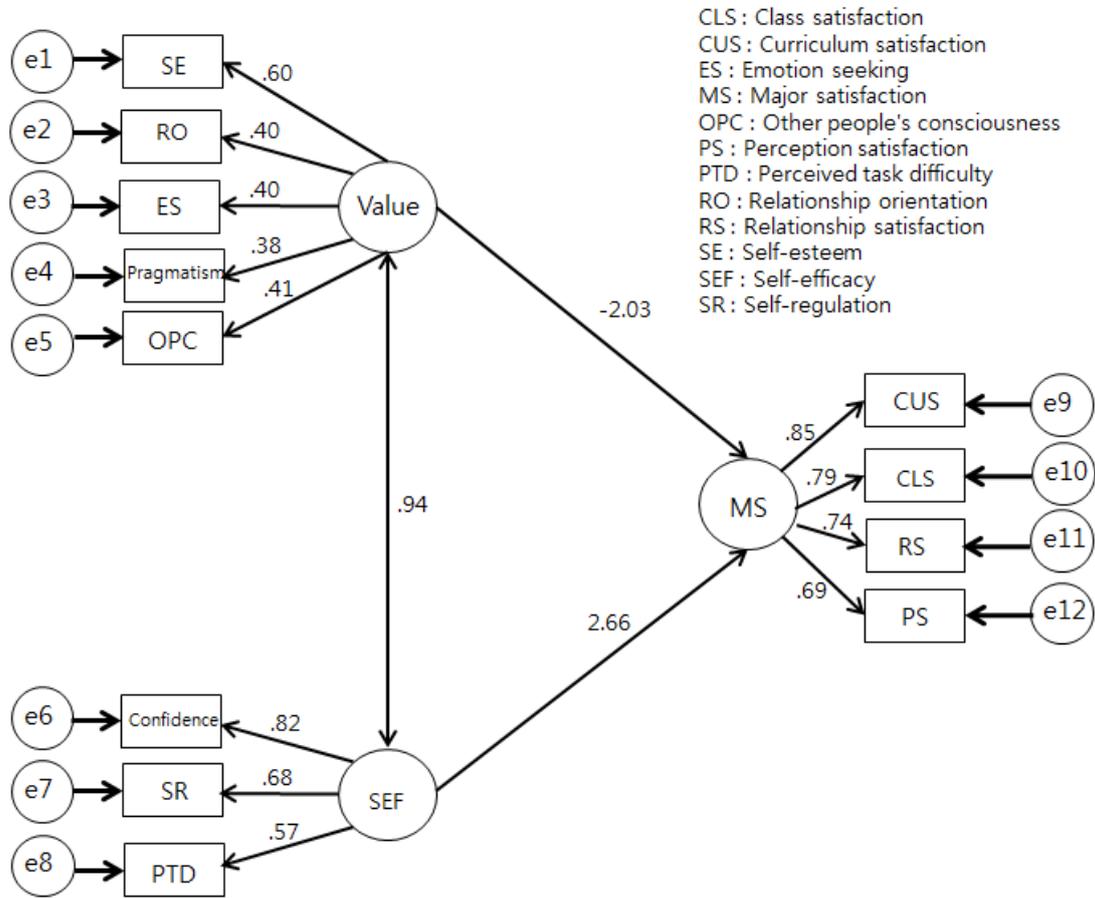
Model	$\chi^2$	DF	GFI	RMSE	AGFI	CFI
Original	121.098	62	0.903	0.075	0.858	0.911
Modification	88.655	51	0.920	0.066	0.878	0.941
Structural equation	99.073	52	0.912	0.007	0.868	0.926

DF=degree of freedom; GFI= goodness-of-fit index; RMSE=root mean square error; AGFI= adjusted goodness-of-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 3. 구조방정식의 적합도 검증

측정모델의 적합도 지수 중 AGFI와 RMSEA는 적합도 기준을 약간 벗어났지만, GFI, CFI값은 양호하게 나타나 연구모델이 표본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모델 없이 최대우도법 측정방법을

통해 구조방정식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 3과 같이  $\chi^2=99.073$ , 자유도(DF)=52,  $p=0.000$ , GFI=0.912, RMSEA=0.007, AGFI=0.868, CFI=0.926의 적합도 지수를 갖는 그림 3과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이 도출되었다.



<Figure 3> Structural equation results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연구가설의 검증에서 가설1은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서 경로계수는 -2.033(C.R=-2.615,  $p<0.05$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하였다. 가설2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서 경로계수 2.655(C.R=3.682,  $p<0.05$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하였다(표 4).

<Table 4>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ath analysis

Path	SC	NSC	SE	CR	p
Value → Major satisfaction	-2.033	-6.300	2.409	-2.615	0.009
Self-efficacy → Major satisfaction	2.655	3.317	0.901	3.682	0.000

SC=standardized coefficient; NSC=non-standardized coefficient; SE=standardization estimation; CR=construct reliability.

#### IV. 고찰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가치관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고자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치관과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는 음(-)의 유의한 영향을 주어 가치관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정희영과 박옥련(2009)의 연구에서 물질주의 가치관과 교과만족 간의 관계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자아존중 가치관이 높을수록 인식만족이 높게 나타나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므로 자존감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두어 전공에 대한 자신의 지각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예정과 이종호(2013)도 가치관이 전공만족의 하부요인인 교과만족, 진로방향, 사회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다른 결과는 전공의 특성에 따라 가치관과 전공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본 연구에 참여한 보건계열 학생들은 가치관이 높을수록 오히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과에 불만족하는 학생의 수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보건의료인이 되기 위해 전문지식을 익혀야 하는 보건계열 학생들이 향후 직장 적응에 실패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유호 등(2014)은 진로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학생이 선호하는 분야가 확고할수록 전공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된 학생일수록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를 전공하지 못한다면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자신의 적성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전공을 선택해야 학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자신에 맞는 적성과 흥미를 알지 못한 학생들 중 가치관이 높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공에 대한 학

습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된다면 적성과 진로의 불합치로 인한 불만족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직업적 비전과 전공만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 학생들이 전공에 긍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Butler(1998)는 자기효능감이 직업경력 기초가 되는 사회인지적 기술을 개발시키는 요인이라 하여 주어진 직업적 추구를 적절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기조절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세나와 김은숙(2015)은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는 대학생들이 높은 전공만족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승희와 전태준(2006)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이 진로결정의 하위 요인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및 문제해결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송운정과 조규관(2015)은 정(+) 상관성이 있으며,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한 예측요인으로 학습몰입이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김우경과 김웅준(2012)은 전공에 대한 만족과 자긍심의 결여가 낮은 취업률과 높은 이직률의 원인이고, 자기효능감이 진로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영(2010)은 미용전공 대학생들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는데 특히 자기효능감의 하부요인 중 자신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전공 수업 시 어려운 내용보다는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해 수업 중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반복적 실습과 함께 봉사활동과 현장실습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Han 등(2008)은 자기효능감은 의사소통, 감정조절, 대처행

위에 영향을 주어 직장 생활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은 전공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설정해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훈련을 통해 획득된 문제 해결 능력은 자기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보건계열 대학생은 가치관이 높을수록 오히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자기효능감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도 높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실패하는 보건계열 대학생들 감소시키기 위해 학교는 가치관이 높은 학생들에 대한 전공과 관련된 긍정적 요인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치관과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학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표본의 자료 수집이 당진시 소재 대학 보건계열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적인 한계점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국의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좋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이라 사료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보건계열 대학생은 가치관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낮았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프로그램 적용 전·후 전공만족도에 대한 향상여부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현

실성 있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전공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보건계열 학생들로 보편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편적 특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강승호.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중도탈락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2010;23(1): 29-53.
2. 김경근, 변수용.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006;16(4):1-27.
3. 김영국, 박현규, 남장현. 커피전문점 브랜드의 연예인 광고모델 적합도, 기업, 고객관계품질, 브랜드 충성도 간의 구조적 관계 고찰. *품질경영학회지* 2015;43(3):383-395.
4. 김우경, 김응준. 체육계열 전공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결정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012;17(2):65-77.
5. 김유호, 정규호, 김경희. 보건의료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전공적응간의 관계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14(12):538-544.
6. 김형만. 전문대학 대학 졸업생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7. 나승일, 정철영, 박동열, 이해선. 전문대학 학생의 학습능력과 교육 요구. *농업교육과인적자원개발* 2002;34(3):91-106.
8. 박수길, 이영희.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02; 14(1): 141-160.
9. 송윤정, 조규판.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학습몰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5;15(4): 355-374.
10. 우종필.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아카데미*, 2012.
  11. 이세나, 김은숙.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5;16(8):5304-5313.
  12. 이승희, 전태준. 운동선수의 자기효능감과 진로 결정요인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006; 19(1):171-184.
  13. 이시라. 남자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경기도: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1.
  14. 이영애. 불평처리 만족도와 장기관계 형성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 상담 서비스 품질 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2015;46(3): 37-56.
  15. 정희영. 미용전공 대학생의 가치관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부산: 경성대학교 대학원, 2010.
  16. 정희영, 박옥련. 미용전공 대학생의 가치관과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의 관계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2009;10(1):35-49.
  17. 최광열. 전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정도가 직업관정립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진주: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1.
  18. 최길순.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G광역시 D대학을 중심으로. *한국비즈니스리뷰* 2010;3(1):95-118.
  19. 한예정, 이종호.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2013;19(2):76-92.
  20. Bandura A.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1982;37(2): 122-147.
  21. Butler G.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Th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8;37(4):470.
  22. Han SS, Kim MH, Yung EK.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8; 14(1):73-79.
  23. Scheier LM, Botvin GJ, Diaz T, Griffin KW. Social skills, competence, and drug refusal efficacy as predictors of adolescent alcohol use. *Journal Drug Education* 1999;29(3):251-279.
  24. Schwartz SH, Bilsky W.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0;58(5):878-891.
  25. Sullivan BA, Hansen JIC.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of the interest scales on the Campbell Interest and Skill Surve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04;65(2):179-202.